



예거 르쿨트르, 더 컬렉터블 북 출간

아이코닉한 빈티지 피스 캡슐 컬렉션을 담은 새로운 마스터 레퍼런스 북

예거 르쿨트르는 그랑 메종의 역사를 더욱 깊이 알고자 하는 시계 수집가와 애호가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인 더 컬렉터블을 선보입니다. 매뉴팩처 탄생 190 주년을 맞이하여 선보이는 이번 컬렉션은 기존의 예거 르쿨트르 타임피스 라인업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와 20 세기 워치메이킹의 정점을 보여주는 더 컬렉터블 컬렉션은 진귀하면서도 가장 많이 사랑받은 타임피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CEO 캐서린 레니에는 "수집가들 사이에서 예거 르쿨트르의 상징적인 타임피스들이 많은 사랑을 받는 가운데 더 컬렉터블 북을 선보이게 되어 기쁩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이번 프로그램은 20 세기 그랑 메종의 가장 상징적인 타임피스에 대한 마스터 레퍼런스 북과 매뉴팩처의 특별한 빈티지 피스를 소장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더 컬렉터블 컬렉션은 jaeger-lecoultre.com 에서 구매 가능하며 빈티지 타임피스가 지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또한, 캡슐 컬렉션 형태로 전 세계를 순회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선보이는 모델로는 지오피직, 메모박스 파킹, 마스터 마리너 딥 씨 및 샤크 딥 씨가 있습니다. 모든 컬렉터블 타임피스에는 예거 르쿨트르 아카이브의 발췌본, 새로운 시계 스트랩 및 더 컬렉터블 커피테이블 북이 포함됩니다. 또한, 가능한 경우 해당 피스의 오리지널 워치 박스와 보증서, 오리지널 스트랩 또는 브레이슬릿이 함께 제공됩니다.



더 컬렉터블 컬렉션의 타임피스들은 메종의 역사 전문가들의 심층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선정됩니다. 매뉴팩처의 복원 워크숍에 소속된 워치메이커들은 해당 타임피스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후 복원 작업을 진행합니다.

현재 전문가 10 명으로 구성된 복원팀은 매뉴팩처의 아카이브에서 모든 시계의 스케치는 물론 오리지널 부품의 일부 재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부품이 아예 없는 경우 6,000 개에 달하는 형틀 또는 각인 기록을 활용하여 같은 부품을 원형 그대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랑 메종은 모든 위치를 자체 제작하는 통합형 매뉴팩처를 운영 중이므로 모든 복원 과정을 인하우스에서 진행합니다. 기계적인 복원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경우 케이스 및 다이얼의 변형은 최소화하여 복원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렇듯 예거 르쿨트르의 헤리티지 팀은 지나친 복원 작업으로 인해 시계 애호가들이 원하는 시계 본연의 유서 깊은 특성이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계의 오리지널 컨디션이 최대한 보존된 시계를 매입합니다.

"메종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시계를 복원하여 다시 한번 선보이며 환경을 위한 지속 가능성과 재사용에 기여하는 역할 또한 수행합니다. 50 년 혹은 80 년 전에 출시되었으나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타임피스를 만나보는 것은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나아가 세상의 아름다움까지도 느껴집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시간을 초월한 작품처럼 말입니다"라고 캐서린 레니에는 전합니다.

더 컬렉터블 커피테이블 북은 1925 년부터 1974 년까지, 20 세기 워치메이킹의 황금기에 매뉴팩처에서 생산했던 주요 모델 17 피스를 조망합니다. 그랑 메종을 이끌어온 개척 정신을 기념하는 혁신적인 타임피스에는 리베르소, 메모박스, 퓨처매틱, 지오피직이 포함됩니다. 총 17 개 모델이 탄생한 역사적 배경을 포함한 상세 정보를 각 챕터를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매뉴팩처 아카이브에서 가져온 사진과 역사적 문서들이 수록되어 있어 수집가에게 필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거 르쿨트르 시계 수집가와 애호가들은 온라인과 다양한 인쇄물을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지만 그랑 메종의 전문가들에 의해 20 세기 주요 모델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책 한 권으로 집약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 컬렉터블 북은 수집가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자료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역사 애호가들에게 반세기 동안 이루어진 현대 기계식 시계의 발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선사합니다. 시계가 탄생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은 물론 20 세기 사회적 변화에 직면한 워치메이킹 분야의 대응 방식과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가 그 발전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1920 년대, 손목시계와 새로운 스타일의 드레스가 인기를 얻으며 여성들은 경직된 전통 사회의 수많은 제약들을 과감히 벗어 던지며 자유를 손에 넣었습니다. 1930 년대에 탄생한 리베르소는 독창적인 스타일과 컬러 다이얼, 중성적인 이미지로 당시 유행을 선도했던 '스포츠 신사'를 사로잡았습니다. 기술이 급부상하고 글로벌 사업가가 등장했던 1950 년대에는 퓨처매틱, 메모박스, 지오피직과 같은 오토매틱 무브먼트와 실용적인 여러 기능을 탑재한 시계가 출시되었습니다. 이렇듯 더 컬렉터블은 세계 역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특별한 순간을 떠오르게 합니다.

- 컬렉션은 그랑 메종의 상징적인 타임피스로 구성됩니다.
- 레퍼런스 북을 통해 시계가 탄생한 역사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 타임피스는 메종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선정되며, 매뉴팩처의 복원 워크숍에 소속된 전문 워치메이커들에 의해 전체 점검 및 복원 작업을 거칩니다.
- 수십 년 전에 탄생했지만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새로운 생명을 얻은 타임피스들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시간을 초월한 견고한 오브제로 재탄생하였습니다.
- 1920 년대부터 1970 년대까지, 50 년간 이어진 20 세기 워치메이킹의 황금기에 매뉴팩처에서 생산했던 주요 모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 컬렉터블 컬렉션은 50 년간 사회적 변화에 직면한 워치메이킹 분야의 대응 방식과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가 그 발전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예거 르쿨트르: 1833년부터 이어온 파인 워치메이킹의 명가

고요하고 평온한 발레드주에 위치한 예거 르쿨트르의 고향에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특별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곳은 구성원들이 쥐라 산맥의 뛰어난 경관에서 영감을 얻고 그랑 메종의 정신을 이어받아 혁신을 향한 끝없는 열정과 창의성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곳입니다. 매뉴팩처의 한 지붕 아래 모든 기술이 모인 이곳에서, 워치메이커, 엔지니어, 디자이너, 장식 공예의 대가들이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워치메이커 중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833년부터 1,3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왔으며, 이는 1931년 리베르소의 탄생을 이끌었습니다. 슬림한 아르데코 라인과 독특한 회전 케이스를 갖춘 리베르소는 20세기 디자인의 클래식이 되었으며, 시대를 막론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계 중 하나로서 오늘날까지 시대를 초월한 현대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jaeger-lecoultre.com